달라이 라마, 민주적 절차로 선정한다

14대 달라이라마 11월 5일 외신 인터뷰서 밝혀

박지수 객원기자

티베트불교 최고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후계자를 민주적으로 뽑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달라이 라마는 전임자의 환생자로 지목된 어린 소년이 대를 이어왔다. 하지만 현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갸초가 변화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티베트 탄압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11월 5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니혼케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달라이 라마는 "기존 달라이 라마 선출 방식은 오래된 제도다. 변화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나는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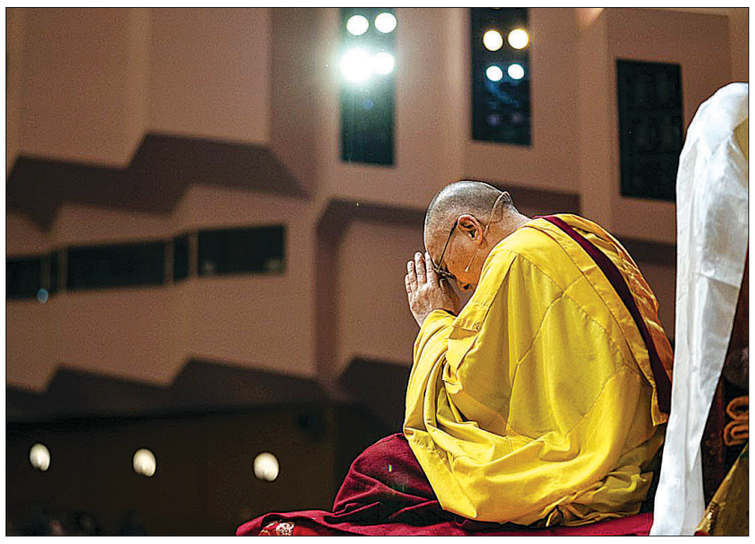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후계자로 덕과 지혜가 있는 고승이나 학식이 뛰어난 학승을 언급했다. 적절한 자질을 갖춘 20세 정도의 인물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동안 어린아이들 가운데 환생자를 찾아 교육해온 전통적인 환생 제도를 폐지하고 성인 가운데서 후계자를 찾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를 가톨릭교회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로마교황을 추기경들의 선거에 의해 뽑는 것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톨릭 교회서는 콘클라베라는 절차를 통해 교황을 투표로 뽑는다. 이런 후계자 선출 방식은 이달 말 다람살라에서 열리는 고승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후계자 덕 · 지혜 있는 고승
또는 20세 전후 인물 적합
'中 간섭 최소화 위함' 분석
이달 말 고승위원회서 논의

달라이 라마의 갑작스런 후계자 선정 방식 변경 논의와 관련해 언론들은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수년 전 인도 병원에서 전립선암의 초기증상을 발견했고, 미국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 완치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런 후계자 선출 방식의 변화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951년 티베트를 점령하고, 달라이 라마의 정통성 부재를 티베트 지배의 명목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환생여부의 검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독자적인 후계자를 내세울 가능성도 높다는 문제도 제기돼왔다.



14대 달라이 라마가 최근 전통이 아닌 새로운 제도로 후계자 선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달라이 라마 공식 홈페이지

달라이 라마는 또한 이 인터뷰서 로힝야족 문제도 언급했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무슬림인 로힝야족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과 얘기를 나누고 편지를 보낸 적 있다고 언급했다. 수치 국가자문은 그에게 문제 해결의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편지에 대해서는 답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도의 테러라는 보도를 보고 매우 슬펐다. 부처는 이슬람교도를 도와줬을 것"이라며 "종교의 이름으로 살상을 일으키고 특히 어린이들이 희생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대 규모 불교문헌 온라인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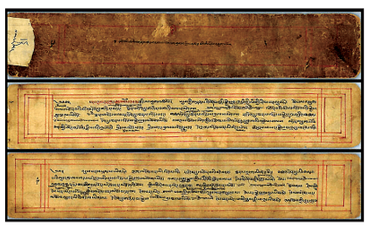
BDRC, 약 1만1000개 문헌 인터넷아카이브 공개

불교디지털자원센터(the Buddhist Digital Resource Center, 이하 BDRC)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교문헌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세계 예술 · 문화 관련 사이트 마이모던멧(My modern met)은 11월 11일 "1500만 쪽 규모 이상의 불교문헌을 보유한 BDRC가 그 중 일부를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계 불교문헌을 전 세계 불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헌들은 불자 및 수도승들에 의해 쓰인 것으로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BDRC는 설명했다. BDRC는 그동안 네팔의 산스크리트어 문헌, 몽골국립도서관 소장 전체 티베트 컬렉션 등 다양한 문헌들을 디지털화해 왔다.

심지어 때로는 전통을 보존하는 희귀한 문헌들도 우연히 발견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는 BDRC 직원들이 티베트 북쪽 지방 사원에서 발견한 문헌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는 11~12세기 전통을 잃어버린 카담파(Kadampa)의 유일하게 현존하는 문헌이었다. 이 같은 디지털화 덕분에 Kadam Master Sharawa Yontan Drak(1070~1141)의 '〈보리도등론〉 해설' 등과 같은 고대 작품들을 전 세계 불자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됐다.



11~12세기 카담파 지도자가 쓴 〈보리도등론〉 해설. 〈보리도등론〉은 인도의 아티샤(982~1054)가 지은 뒤 티베트 카담파를 거쳐 총카파가 쓴 〈보리도차제론〉의 기본이 됐다.
사진출처=My modern met

BDRC의 명예전무이사 제프 월만은 "BDRC의 창립 취지는 온라인을 통해 '보물' 같은 불교 문학들을 전파, 보존하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개개인이 문화를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개개인은 문화 보존을 위한 올바른 조건과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진귀한 불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는 비영리조직 인터넷아카이브(the Internet Archive)와 협력으로 성사됐다. 현재 BDRC는 약 1만1000개의 불교 문헌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아카이브를 통해 공개 중이다. BDRC는 1999년 불교학을 보존 · 전파하기 위해 설립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헤비메탈 공통점 '無想 고찰'

록스타 폴 매스비달 인터뷰서 견해 밝혀

미국의 록스타 폴 매스비달(Paul Masvidal · 47)은 20년 동안 불교 수행자로 살아오며 '불교'와 '헤비메탈' 장르의 연관성을 깨달았다. 그에 따르면 너무도 다른 매력의 두 가지는 '죽음에 대한 고찰'이란 공통점에서 마주한다.

'트리사이클(tricycle)'은 지난 11월 7일(현지시간) 기타리스트이자 작사가, 보컬리스트인 폴 매스비달을 조명했다. 록밴드 'Death'에서 음악 생활을 시작한 그는 '내면 작업'에 몰두하는 것을 통해 장르를 뛰어넘는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을 터득해 왔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불교와 헤비메탈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불교는 '조용'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반면, 헤비메탈은 시끄럽고 과격하다. 하지만 두 가지는 모두 '죽음'에 대한 고찰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상(無想)'과 같은 불완전한 주제를 탐험하는 의지다. 극한 메탈 장르에서 그 죽음에 관한 불안감은 예술 형태로 표현된다. 불교는 앉아서 무상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을 또 다른 레벨로 끌어 올린다"고 설명했다.

그가 불교에 입문한 것은 어릴 적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는 어머니를 '좋은 친구'이자 자신을 '영적 존재'에 눈뜨게 한 안내자라고 표현한다.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도 저는 불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힘든 20대를 겪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교를 제 마음에 직접 투영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현상의 문제가 '바깥'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테라바다 통찰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관용을 키운다는 록스타 폴 매스비달.
사진출처=트리사이클

그가 즐겨하는 명상은 테라바다 통찰 명상이다. 그는 "그 명상법은 내게 가장 적합하다"며 "관용을 일구는 것이 전부다. 누가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달라이 라마가 '친절'이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호스피스 봉사자로 일했다. 호스피스 활동을 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그것을 바로 인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제 '불자'이자 '밴드'로서 활동한 20년을 기점으로 첫 솔로 미니 앨범을 발매한다. 이 역시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을 주제로 삼는다. 트리사이클은 "그의 미니앨범은 음악 테라피 만큼이나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킬 것"이라며 "그는 자신의 다르마 수행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남방불교 3국, 불교진흥 협력 강화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제1회 리더스 컨퍼런스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등 남방불교 3국이 불교진흥과 발전을 위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관련 워크숍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베트남언론 '베트남뉴스'는 "11월 12일 캄보디아 · 라오스 · 베트남 불자들은 세 나라의 불교진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서 열린 제1회 3국 불교지도자 회의에 참석했다"고 13일 보도했다.〈사진〉

비엔티엔 국립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는 라오스 불교펠로우십기구 대표 만하 응곤 댐롱번과 라오스 국가발전협회 사이솜폰 폼비하네를 비롯한 3국 불교도 570여 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라오스 국가발전협회와 불교펠로우십기구가 주관한 이 회의는 3국 불교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라오스불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만하 응곤 댐롱번은 "불교는 승려를 비롯해 불교 초심자, 일반대중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라오스의 문화와 풍습을 보호하도록 가르친다"며 "이 회의는 3국 불교의 협력을 높이고 역할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베트남뉴스

3국 불교지도자들은 불교 확산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라오스는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함께 불교탐방로를 마련하고, 불교발전에 대한 경험을 쌓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불교 관련 워크숍과 전시회를 열고, 교환학생 교류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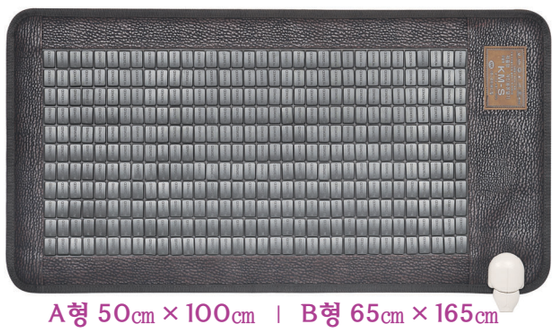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공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학 및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등록대학

한국불교교육대학 대학원 천불사
COLLEGE AND GRADUATE SCHOOL OF KOREAN BUDDHIST EDUCATION CHEON BOOL SA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8-16 흑성산
TEL : (041) 557-3223 FAX : (041)556-1388

조실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문학박사 인환 대종사 주지겸학장 : 철학박사 석 인 경 (太山-印鏡)합장